

경양방죽 설화는 어떻게 전승돼 왔는가

이옥희 박사 논문 발표, 축조 시기·인물 등 고찰...“역사 기록 없지만 방죽 의미와 상징성 커”



1960년대 이전만 해도 경양방죽은 광주 도심의 대표적인 자연공간이었다. 또한 호남지방 중심고을의 관개용 저수지로서의 역사성뿐 아니라 생활사와 문화 교류 측면에서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경양방죽 자체에 대한 기록, 일테면 언제 누가 축조했는지 등의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 같은 역사서를 비롯한 개인 문집에도 축조에 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1940년대 경양방죽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설화를 통해서 “누가, 언제, 왜 축조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수의 민중을 통해 구전되는 설화의 특성상 이야기는 생명력을 지닌다.

경양방죽에 관한 다양한 설화와 이 설화가 어떻게 전승돼 왔는지를 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이옥희(전남대 국어국문과·사진) 박사가 ‘호남문화연구’(64집)에 발표된 ‘경양방죽 설화의 전승담론과 서사 전략’은 경양방죽 설화의 자료 현황과 설화들이 어떤 목적과 담론에 의해 구전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고찰한다.

이 박사는 “광주 전남의 역사와 민속, 사회, 예술 등을 공부하는 모임인 지역사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 가운데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과 경양방죽을 연구했는데 제가 맡은 쪽은 설화 분야”라며 논문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경양방죽에 관한 설화를 기록한 가장 오래된 자료는 ‘황성신문’(1902년 6월 9일)이다. 당시 작성자는 “우리나라 저수지 중에서 김제 벽골제, 고부 논제, 익산 전주 사이에 있는 황등제, 합창의 공검지, 제천의 의립지, 덕산의 합덕지, 광주의 경양

지, 영유의 덕지, 연안의 남대지 등이 활용도가 높는데 이들은 모두 신라백제시대부터 있었으며 나라차원에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 자료는 일제강점기 중추원 조사자료인 ‘水利에 관한 구관(舊貫)’이다. 여기에는 ‘수리시설의 소유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제언(堤堰·堰)은 관유(官有) 민유(民有)가 있는데 경양방죽은 민유 제언 중 공유제인’으로 언급돼 있다.

이 박사는 다음의 자료로 ‘光州郡誌’(1933), ‘전남향토사’(1964)를 언급한다. 전자에는 전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광주의 대지주이며 관찰사인 김방이 관개수를 저류할 목적으로 축조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후자의 ‘蟻公報憑(의공보은)의 경양지’에는 광주 서방에 사는 이 모씨가 큰물이나 개미집을 발견하고 구해줬는데 개미떼가 쌀을 몰아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

이 나온다. 이후 도적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갔는데 개미 이야기를 하고 석방이 된다. 그는 가뭄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수지를 축조한다. 일설에는 효천면 대지주 김방이 제방을 쌓은 저수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일보의 자료(1967년 4월 30일)에는 경양방죽 축조를 고대까지 소급하고 있지만 역사적 고증은 제시돼 있지 않다.

“후백제왕 견훤의 어머니 남원부인이 광주의 부자로서 북촌에서 살았는데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기 직전인 신라 진성여왕 때 극심한 흉년이 맞아 광주사람들이 굶주림에 허덕이자 관개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양방죽을 만들었다.”

이후 1968년 김방의 후손 김홍삼이 발행한 ‘경양방죽의 역사-김방을 중심으로’와 1985년 편찬된 ‘光州市史’에 기록된 설화는 내용과 구조가 일치한다. 또한 ‘無等

山’(1988)에는 앞의 설화와는 구조가 다른 이야기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경양방죽의 이름이 “가난하고 힘없는 박경양이라는 백성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는 유사한 설화가 하나 더 있는데 김부자의 이름을 ‘김방’으로 명시하고 있다.

저자는 “자료를 분석해보면 필자에 따라 이야기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 가장 빈도수가 높은 설화는 개미보은 서사와 결합된 김방 축조설”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들 설화들은 어떻게 전해지고 왜 전승됐을까. 이 박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를 파악한다. 하나는 신화적 모티프인 개미설화가 있는데 김방설화와 연계돼 있다. 개미는 민중을 가리키는 데 기존 재물이 모여 경양방죽이 축조됐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김방이 부각되는 것은 그가 역사적 인물이고 광주에 살았기 때문이다.

후일 순천 낙안으로 이주를 하는데, 그의 가문에서 김방을 통해 가문을 지키려는 의도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또 한축의 설화는 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야기다. 그 대척점에 박경양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김부자의 핏방으로 죽임을 당한다. 이후 병이 든 김부자가 씻김굿을 하게 되고 해원을 하는 방식으로 호수를 만든다. 이 박사는 이 설화는 80년대 이후 시대적 상황과 민중의 바람이 투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인다.

그러면서 이 박사는 “대체로 사람들은 공공재인 농업용수나 관개수를 독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되면 병이 들거나 죽게 된다”며 “경양방죽은 광주를 표상하는 장소로서 객관적 실재는 사라졌지만 설화를 통해 그 생명력을 지속해 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3인조 밴드 ‘프롤로그’ 25년만에 단독 콘서트

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3인조 밴드 ‘프롤로그’(사진)가 결성 25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연다.

포크록 장르를 내건 프롤로그는 보컬과 기타를 맡은 최성식씨를 주축으로 대학시절 선배였던 서민정·박동주씨가 모여 만든 밴드다. 최성식씨와 서민정씨는 지난 2000년 화축을 밝히면서 부부 밴드라는 이름도 얻었다. 이들은 광주라 이브클럽에서 꾸준히 연주하며 지역축제·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나왔다. 지난 2016년부터는 투게더 광산 나눔 문화재단의 ‘나눔 in 콘서트’ 무대에 설 기회를 얻어 18회 공연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을 알렸다.

프롤로그는 오는 9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광주시남구 구동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다시합시다’ 공연을 연다. 콘서트 주제가기도 한 ‘다시합시다’는 프롤로그가 지난 2017년 10월 발표한 첫 정규 앨범 이름에서 따왔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다시합시다’와 함께 최씨의 자작곡 등 11곡이 담겼다.

“1년 여 전 첫 정규앨범을 냈으니 우리 음악인생의 프롤로그(시작)는 지금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 콘서트가 넘어야 할 일이나기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공연은 앨범 수록곡과 유명 포크록 노래로 꾸미질 예정이다. ‘김원중의 달거리’ 공연을 함께 해온 김원중과 로그인 밴드도 함께 무대에 선다. 전석 3만원. 문의 062-262-216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대를 만난 건 행운이여라’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8일 예총 방울소리공연장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119번째 공연 ‘그대를 만난 건 행운이여라’가 오는 8일 오후 7시 서구 농성동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다.

3월 공연에서 배우는 노래는 나태주의 시에 김정철 작곡가가 음을 입힌 ‘들길을 걸으며’이다. “오늘도 들길을 걸으며 당신 생각합니다/나도 당신 발에 밟아 새로운 풀잎이면 합니다.” 등 서정적인 노랫말로 가곡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임현진(사진)이 초청돼 ‘그대가 꽃이라면’, ‘아리 아리랑’을 부른다.

조선대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와 독일 쾰른 국립음악대학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그는 현재 광주영재 예술교육원, 전남예술고, 전남과학대에



출강하고 있다. ‘봄이 오면’, ‘봄 처녀’, ‘사공의 노래’, ‘장안사’ 등 봄을 그린 노래들과 ‘나를 케는 처녀’, ‘남촌’, ‘그리움’, ‘꽃구름 속에’도 무대를 채운다. ‘나의 별에 이르는 길’(테너 봉필수), ‘신 아리랑’(소프라노 양복선), ‘불타는 강대나무’(테너 임평섭), ‘수선화’(소프라노 박승미), ‘내 마음은 그 깊은 곳에’(바리톤 이승우) 등 회원 연주도 이어진다. 시 낭송가 남 신씨는 유안진의 작품 ‘들꽃 언덕에서’를 읊는다. 참가비 무료. 문의 010-2694-4592.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 ‘모성’

광주 출신 오미옥 시인 ‘12월의 버스 정류장’ 펴내

“저에게 시는 사랑입니다. 작은 풀꽃도, 가난한 사람도, 소외된 이웃들도 한 번 더 바라보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낮은 세상을 기어 오르는 담쟁이 같은 마음의 시를 쓰고 싶습니다.”



이번에 오 시인이 펴낸 첫 시집 ‘12월의 버스 정류장’(문학들)은 그러한 시풍을 엿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서사가 주를 이루지만 시인의 시선이 가족에만 한정돼 있지 않다.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황선열 문학평론가는 이를 ‘모성’으로 본다. 그녀가 노래하는 모든 사물들은 상실과 아픔을 노래할 때에도 묘한 사랑의 감정에 휩싸이는데, 그 근원에는 세상 만물이 모두 측은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대지의 신을 상징하는 모성”이 자리한다는 것이다.

이번 시집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사적 구조로 이루어진 시들이 많다는 점이다. 시를 통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아픔을 감싸 안으며, 이를 자신의 고통으로 치환한다.

“첫아이 출산하고/ 백일 지나 달력 수태된 생명// 죄의식도 없이/ 핏빛 생명 지우

고/ 스무해 넘게 살아왔는데/ 삭풍에 피어/ 끝끝내 도달하지 못할/ 내가 버린 생명 같은 꽃 피었다.”(‘소설(小雪)’중에서)

시인은 소박하고 순정한 마음을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풀어낸다. 상실과 아픔을 노래할 때도 모성이라는 근원적 감정으로 바라본다. 박두규 시인은 추천사에서 “선한 품성이 시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고향집 낮은 울타리 옆으로 핀 하얀 접시꽃들을 생각나게 하는 시집”이라고 평한다.

한편 오미옥 시인은 2006년 ‘사람의 깊이’로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순천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백세 찞구미식당

전남 나주시 이창동 158-16번지
찞구미, 삼겹살, 갈비, 오리로스
☎061)332-7313, 010-8224-7313

청학 철학원

북구 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동양 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텐,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족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씨브웨이 광주충장로점

동구 중앙로 160번길 31-18 (황금동)
직원모집 합니다.
08:00~23:00
☎062)236-1121

꼬야전통마사지 전문점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25, 2층
(남평5일시장앞 대로변 새건물2층)
최신시설완비 남여 마사지 전문점
친절 신용 분위기
☎010-9277-2011, 010-4624-8457

기담 철학원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옆
(우산그린공원 옆)
사주(음력·양력) 쉽게 가르쳐드립니다.
개인·단체 환영
☎062)432-1324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컬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 돼지고기 전문, 닭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 예술의 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루팡 닭강정

북구 용두동 우방아이유셀상가
매운 맛, 달달한 맛
개인·단체 환영
대표 한경수 ☎010-3844-7145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062)263-2223

박당 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 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 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해피니스요양병원

북구 삼정로 142
(두암동, 청야맨션 건너편)
☎062)251-8400